

# 최악의 성적표...광주·전남 전문건설 실적 급감

광주 지난해 기성실적 2조8000억 전년비 11.9%↓ ...하도급 14.4%↓  
전남 5조388억 전년비 2%↓ ...건설경기 침체·원자재 가격 급등 등 원인

지난해 광주와 전남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중·대형 공사는 물론 소규모 공사 발주까지 줄어들면서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공사, 상·하수도, 급속·장호로 대표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입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올해 건설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짐에 따라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난해 전문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지역 1558개 전문건설업체 중 1368개사가 신고한 지난해 기성실적총액은 전년(3조2736억원)보다 11.9% 감소한 2조 8840억원을 기록했다.

도급 형태별로는 원도급 공사는 2.1%가 상승한 5135억원을 기록했지만, 하도급공사는 14.4% 하락한 2조 3704억원이었다.

광주시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장기불황 속에 마

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적 조사 결과 2020년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실적도 감소했다. 전남도회에 따르면 전남도 내 3835업체의 실적 신고 결과, 기성총액은 5조 38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5조 1428억원) 대비 2% 감소한 수치다.

광주와 전남 전문건설업체들의 기성 실적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급등, 공공 및 민간 발주 물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도급공사 실적(광주 기준)이 14.4%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종합건설사의 부도 증가와 이에 따른 하도급 물량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급감했다. 지난 2023년 6조를 넘어섰던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2조4680억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고, 전남 또한 5조 6246억원에서 4조 6766억원으로 줄었다.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문을 닫는 업체들도 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광주지역 전문건설 등록업체 수는 전년(2416개)보다 5.1% 감소한 2295개였다. 전남도 7522개(2022년)에서 7263개로 3.4% 감소했다.

박병철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은 "건설경기 악화와 건설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전문건설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사 수주 기회 확대, 공공 발주 확대 건의, 협회 차원의 업계 보호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지역 기성실적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1063억원을 신고한 (주)지형건설이었다. 뒤이어 대원산업개발(유)(902억원), (주)동호(773억원), (합)한남유리(528억원), (주)은진산업(454억원) 등이 상위 5개 기업에 올랐다.

전남에서는 2201억원의 실적을 달성한 도양기업(주)이 13년 연속 실적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정풍건설산업(주)(1293억원), (주)신진건설산업(989억원), 대야산업(주)(738억원), 진흥건설(주)(710억) 순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통주 활성화 정책...쌀 소비 촉진·전남 전통주 경쟁력 두토끼 잡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쌀 소비 5년 내 3만t 소비 목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해 주류용 쌀 소비를 5년 내 5.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지역에는 19종의 대표 전통주가 있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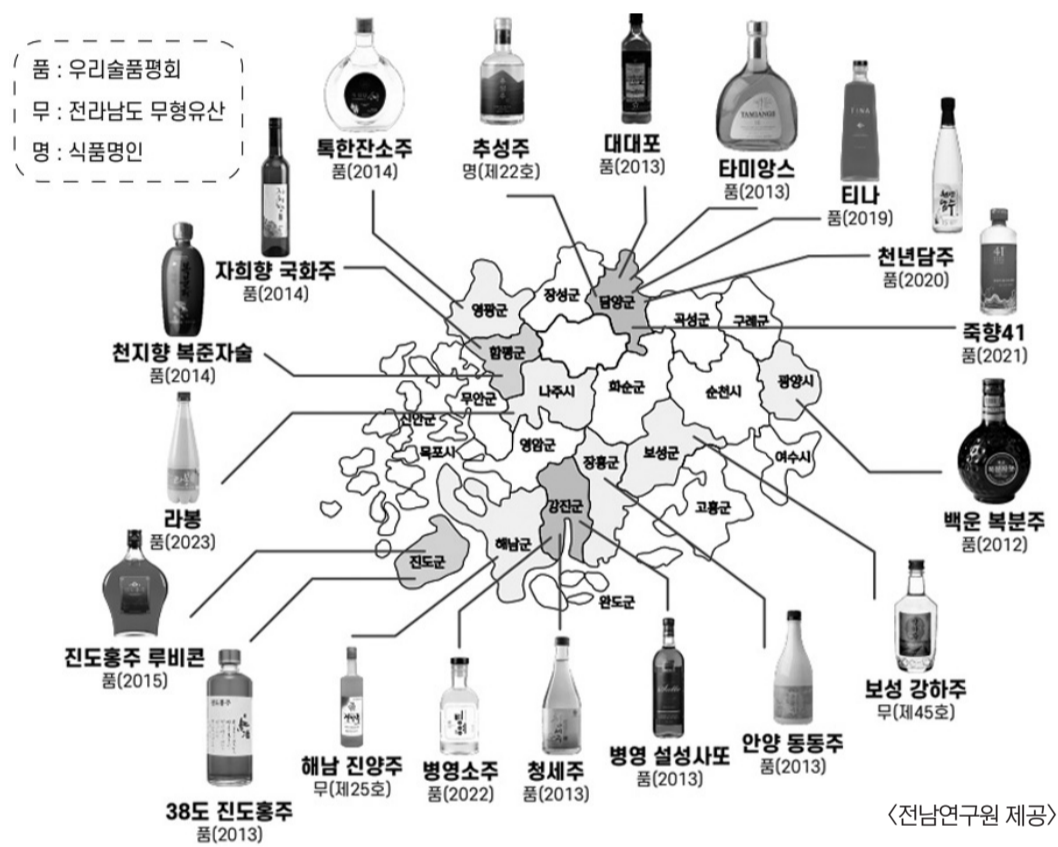
송 장관은 이날 충북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5년 내 연간 3만t(톤) 정도 우리 쌀을 쓸 수 있도록 전통주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사케 제조에 쓰는 쌀이 연간 30만t인데, 우리는 현재 5600t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전통주 기준을 더 완화하면 좋겠지만 전통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올해를 '1단계'로 말하고, 목표대로 시장이 상당히 커진다면 연세적으로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전통주 수출액을 오는 2027년 5000만 달러(719억원)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한식과 페어링해서 내보내는 방안과 해외공관을 통해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대기업도 민간외교를 하는데 바이어를 만날 때 술이 좋은 선물이 될 듯하다"며 "제 생각이지만 전경련(지금의 한국경제인협회) 이런 곳을 통해 홍보하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K푸드 플러스(농식품과 농산업) 수출액은 이달 셋째 주까지 13억 4000만 달러(약 2조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 역대 최대

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올해 농식품 수출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밖에 송 장관은 "다음 주 '농촌소멸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정주하든, 놀러 오든 국민이 농촌에 왕래할 일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떨어질 줄 모르는 광주 아파트 전세가격

0.03% 상승...매매가격 0.05%↓ 40주 연속 하락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승세가 멈추질 않는 모양새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워낙 높아 장기적으로 시세가 유지될 지 회의적인 상황에서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탓인데, 신축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2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광주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상승했다.

지난주(0.02%)보다도 상승폭이 커졌으며,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울산(0.0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특히 이번주 전국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보합세를 기록했는데, 광주는 수도권을 비롯한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을 기록한 5개 지역에 포함됐다.

광주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 들어 단 한번의 하락 없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에만 누적 0.17% 오름폭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0.0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누적 전세가격 상승률이 광주보다 높은 곳은 울산(0.29%)이 유일했다.

반면 매매가격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주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5% 하락했다. 무려 40주 연속 하락이다. 광주는 이번주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전년도 누적 하락률(-0.20%)을 넘어섰다.

전남의 매매가격 하락률도 컸다. 전남은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커진 -0.08%를 기록했다. 특히 광양시(-0.46%)는 중동 대단지 및 광양을 위주로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고, 여수도 문수동·돌산을 위주로 하락하면서 -0.04%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02%) 대비 0.06% 올라 상승 폭을 확대했다. 특히 강남 3구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0.14%→-0.36%)는 0.22%포인트, 강남(0.08%→0.27%)은 0.19%포인트, 서초(0.11%→0.18%)는 0.07%포인트 각각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주택청약도 앱으로...디지털 서비스 개방사업 공모

26일까지 접수·28일 설명회  
연말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행정안전부는 주택청약 서비스나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 27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 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공공 앱이나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내달 26일까지 진행되며, 민간기업에 대상으로 한 공개 설명회는 2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열린다.

후보로 선정된 기업은 서비스 소관 기관·행안부·디지털서비스개발지원센터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연계 요건 협의와 이용약관 체결, 프로

그램 개발을 거쳐 연말부터 민간 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기업 수요 조사와 기존 개방 서비스 연관성을 토대로 서비스 소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8개 분야 27종의 공공서비스를 신규 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서비스는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 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 등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